



재래흑염소 축산연구기관 분양 및 개량기반 조성



개발배경

염소의 국가 단위 체계적인 개량 체계 확립 필요성 증대

- 재래흑염소를 활용한 지역특화 브랜드 염소산업 육성 지원 필요
- * 개량 대상 가족에 '염소' 추가 :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'18.7.)
- * 국가 단위의 「흑염소 개량 지원 사업」 시행(농식품부, '18~'21)



개발 기술내용

재래흑염소 혈통관리 기반구축 및 사육규모 확대

- * 가족유전자원센터 보유 재래흑염소 대상 시범운영(개체식별/등록 체계 구축)

지자체 축산연구기관에 30두 분양 : 3계통(당진, 장수, 통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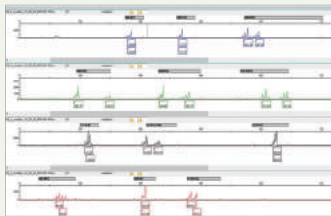
- * 재래흑염소 분양 지자체(10두/기관) : 전남(통영), 전북(장수), 충남(당진)

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체식별·친자감별 시스템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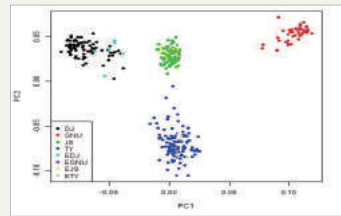
- * 유전체 정보 기반 재래흑염소 계통판별 및 재래흑염소와 교잡종 특이 마커 개발



지자체 염소분양 지원



친자감별 시스템 구축



재래흑염소 계통 식별



파급효과

개량총괄기관과 협업을 통한 염소등록 제도 및 등록기반 마련

재래흑염소 활용(농식품부, 지자체 등 협업) 흑염소 개량기반 구축

- * 재래흑염소 보급 : ('20) 3개소 30두 → ('21) 4개소 50두